FX Market Daily

2025-06-24

전일동향

전일대비 18.70원 상승한 1,384.30원에 마감

23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8.70원 상승한 1,384.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9.40원 상승한 1,375.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험회피 분위기와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상승폭을 확대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 발언 등에 상승폭이 제한되며 1,384.3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0.60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8.55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75.00	1391.00	1374.60	1384.30	1381.90
엔화	934.67	948.04	930.18	946.94	-
유로화	1573.02	1603.43	1563.34	1602.20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5	-6.02	-14.71	-29.84
결제환율(수입)	-0.06	-4.91	-12.88	-26.37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중동 리스크 완화에...1,370원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84.30) 대비 12.15원 하락한 1,369.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동 긴장 완화와 연준 금리 인하 지지 발언 등에 따른 달러 약세 전환에 하락이 예상된다. 이란의 미국 기지 공격이 형식적이었다는 평가 가운데 트럼프는 SNS를 통해 이란과 이스라엘이 향후 12시간 동안 휴전, 24시간 이후 전쟁 공식 종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유가는 7% 이상 하락하는 등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 완화를 시사했다. 한편, 연준의 매파적 인사인 미셸 보우먼 이사는 고용 하방 위험을 강조하며 7월 FOMC 금리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등 주요 연준 인사들이 금리인하를 주장하자 선물시장에서 7월 인하 확률은 기존 14.5%에서 20.7%로 급등했다. 미 국채금리는 7월 인하 기대를 반영하며 장단기물 모두 하락했다. 달러화는 0.39% 하락한 98.39pt를 기록했다. 금일 환율은 중동 휴전 기대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회복과 약달러를 소화하며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등은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64.50 ~ 1375.50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667.58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2.15원↓
- ■ 美 다우지수 : 42581.78, +374.96p(+0.89%)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3.49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6491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